

## 장려상

공직부문 | 지철환



## 아빠, 우리 또 이사 가요?



책으로 쓰면 한 권의 이야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청운의 꿈을 안고 갓 들어온 젊은 경찰관은 서울 역전파출소에 첫 발령을 받았고, 관할엔 유곽이 있는데 명절이면 포주가 돈 봉투를 들고 왔다. 그때 파출소장님이 돈 봉투를 거절하시며 초임 순경에게 일장 연설을 하셨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비리 경찰은 교도소로 가는 지름길이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청렴하게 근무한다면 절대 도중하차는 없을 것이다.”

이후 근무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황금이 나를 유혹 할 때마다 소장님의 말씀과 “절대 돈 받지 마라!”고 하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내 모자에 “청렴결백”이라고 써 놓고 근무 때 마다 보면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며 오직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자!”로 굳게 다짐 했었다. 그래서 인지 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도움을 받지 않고 서울마포구에 월세 방을 얻고 혼자 자취를 하였다. 여동생의 소개로 만난 여자 친구와는 어느새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순경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심하였다. 얼마 후 야간근무 중 포주 부인을 “윤락행위”로 단속하게

되었고 단속 중 포주 부인과 몸싸움이 있었다. 포주는 나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사건을 봐 주지 않으면 성추행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난 현금 500만원을 보는 순간 자꾸만 “결혼자금”이 떠올라 돈을 받고 싶었다.

‘윤락행위를 봐주는 대신 돈을 받으면 고소 협박 건도 없어지겠지.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이 알게되면..’. 온갖 상상과 두려움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더라도 포주를 형사입건하지 않으면 마음은 편하나 직무유기가 되고, 내가 그 돈을 받으면 평생 공직생활 중 오점이 남고 포주에게 코가 꺾어 끌려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과감히 포주를 형사입건 하였다.

포주는 벌금 500만원과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화가 많이 난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고, 며칠 후 법원에서 고소장이 도착 했다. 고소 내용은 “경찰관 처벌과 위자료 및 소송비 3천만 원을 배상 하라”는 내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허위 목격자 진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주위에서는 경찰관이 “독직폭행”으로 소송에서 패하면 구속된다고 하여 경험이 부족한 초임 순경이라 너무 두려웠다. 그 동안 모아 놓은 결혼 자금과 은행 대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지옥 같은 1년 동안의 기나긴 싸움 끝에 재판에서 이겼다. 그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입건하고 그 동안 시달린 정신적인 피해와 변호사 선임비 5천만원을 배상청구 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빼 돌리는 바람에 재산 압류도 못하고 결국은 3천만 원을 날렸다. 이젠 난 어떡하라고? 결혼 날짜는 다가왔지만, 형편이 어려워 결혼을 미루자 여자 친구 부모님은 파혼을 선언했다. 그 때 여자 친구가 울면서 말했다.

“오빠 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못해, 하지만 오빠가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났다. 하지만 당장 머무를 곳이 없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시절 우연치않게 만난 은행장님의 도움으로 대출을 하고, 그분의 소개로 서울 봉천동에 작은

월세 방을 마련하여 그로부터 2년 후 어렵게 결혼을 하였다. 달콤했던 신혼 생활도 잠시 뿐 시골에 홀로 계신 노모의 지병이 악화되어 아내는 홀어머니를 모시자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 방 2칸 월세 방이 나와서 갓 태어난 지 3개월 된 어린 딸과 함께 이사를 갔고 집 근처인 은평 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노모는 날이 갈수록 병이 악화되고 당뇨 합병증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어 병원 주치의는 치료 불가능 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께 배운 돌팔이 한의사의 기질과 경험을 발휘하여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엉경귀로 어혈을 치료하고 홍삼으로 원기를 회복 하고 극진히 간호하였다. 1년 후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의 눈은 0.6으로 회복 되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깜짝 놀라며 “기적”이라고 말했다.

초임 순경시절 포주와의 기나긴 싸움이 끝났나 싶었는데, 결국 후유증이 남아 “스트레스성 척추염”이란 희귀한 병을 얻게 되었다. 설상 가상으로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으나 지불할 돈도 없었다. 이대로 있다간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청림한 공직생활을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런 나를 지켜 본 직장 동료는 경기도 의정부에 유명한 한방병원이 있다고 하여, 나는 또 다시 팔십이 다된 병든 노모와 처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경기도 동두천으로 이사를 갔고 난 연천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척추염을 치료하기 위해 3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하고 3년 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완쾌되지 못하고 목과 어깨는 점점 아파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 의사가 강원도 원주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고 하여 난 또 다시, 갓 태어난 막둥이 아들과 함께 낯선 땅,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이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큰 딸애는 나에게 “아빠 우리 또 이사 가요?”라고 말했다. “응, 원주는 교육의 도시야. 여기서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라고 거짓말을 했다. 우린 대가족이라 월 55만원짜리 큰 방으로 이사를 갔고 난 횡성경찰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횡성경찰서로 발령이 나자, “혹시 돈을 먹고, 징계를 먹고” 발령이 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지는 동료들도 간혹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의연하게 “강원도에 약초가 많아 약초도 캐고 여기서 살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막상 와 보니 내 월급으로는 노모의 병원비와 내 병원비를 충당하고 어린아이 3명을 포함한 6명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다. 은행 대출금은 1억이 넘어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큰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다. 그동안 한 번도 학원을 보내지 못했던지라 학교 성적이 떨어져 아빠에게 하소연 하였다.

“아빠!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나만……. 학원에 안 보내줘요?”

“응, 학원에 가면 학습 능력이 떨어져. 언젠간 스스로 공부해야 해!”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선, 그날 밤 옥상에 가서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 몰래 18k 금반지 2개를 팔았다. 두 딸들에게 영어 수학 학원을 1개월 동안 보냈고 그것이 마지막 학원이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옷을 입던 중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결혼반지 어디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응, 요즘 도둑이 많이 들어와서 파출소에 잘 보관하고 있어”라고 얼버무렸다.

아내는 지금도 결혼반지를 파출소에 보관한 줄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개인 회생” 신청을 할까하고 아내에게 상의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월급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했다. 고심 끝에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팔기로 하고 쉬는 날이면 아내와 함께 강원도 깊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새벽시장에 팔아 간간이 생계를 유지했다. 하루는 야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 퇴근을 하여 집에 갔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은 어느 산에 갈 거예요? 강원도 영월엔 더덕이 많이 있다는데요?”아내는 어느새 약초꾼의 마누라로 길들여진 지 오래다.

한번은 인터넷으로 워커를 구입하여 아내에게 주었더니,

“안 그래도 등산화가 닳아서 발이 미끄러웠는데 고마워요”라고 정말 좋아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팔이 너무 얇아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못난 남편을 만나 약초를 캐며 고생을 하고 병든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모셔서 그런지 내 팔 만큼이나 두꺼워 지고 그 곱디고운 손이 거칠어지고 손마디 굳은살도 생겼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내가 경찰 공무원이란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생각에, 옥상에서 혼자 괴로움에 빠져 “개인회생”신청을 할까 고심하다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 지병 덕분에 홍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왔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홍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고, 마침 이모가 금산에서 인삼을 재배하기에 홍삼을 판매하여 지금 어려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막상 홍삼 가게를 구상 하다 보니 막대한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갔으나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아내가 직접 홍삼 제조공장을 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올렸더니 단 한 사람도 구입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홍삼을 사러 온 고객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쉬는 날이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아내의 홍삼 제조 일을 도와주면서 보낸 시간이 어느새 8년째다. 이웃들은 내가 약초꾼인 줄 알고 있다.

내가 겪고 있는 “강직성척추염”이라는 병이 악화되면 온 몸이 굳고 결국은 전신 마비까지 온다고 한다. 걸을 때 항상 내 목은 ET처럼 앞으로 나왔고 어깨는 굽고 비가 온 날이면 다리를 절게 되었다. 순찰차를 타고 내릴 때 마다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웠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마다 “너는 왜 목이 휘었느냐? 등이 굽었느냐?” 말한다. 하루라도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잠을 못 이루어 6개월간 병원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홀어머니와 아내는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직을 그만 둘 수도 없는 현실이기에 가슴 속엔 눈물을 흘렸다. 세월은 흘러 겨울이 지나가고 얼어붙은 내 가슴 속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곳

“횡성경찰서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넘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불우이웃을 돕고 때때로 혼자 계시는 노인에게 보약을 건네곤 했다. 그것 때문인지 경찰서에서 발간하는 홍보 책자에 내 이야기가 실렸다. 경찰로 근무한 18년 동안 경찰서 일곱 곳을 옮겨 다녔고, 다섯 번 이사를 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범죄자를 검거 한 덕에 지휘관 표창장을 37개 받았고 열심히 근무 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 했는데 “청렴”을 지켜온 덕분에 경위로 승진을 하였다.

아내는 “그동안 힘든 일만 있었는데 이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네요”라고 말했고, 어머니께선 “지금까지 힘들게 청렴을 지켜 온 결과”라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기에 나 역시 가슴이 뿌듯했다. 나를 괴롭히는 병과의 싸움은 계속 되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동안 나의 청렴은 계속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